



# 현재라는 폐허에서



트라이컨티넨탈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진할 목적으로 수 개월에 한 번씩 워킹 도큐먼트 (Working Document)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의 재생산, 번역, 또는 문서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토론 등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워킹 도큐먼트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워킹 도큐먼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환영합니다. 이 문서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거나 워킹 도큐먼트 시리즈를 직접 제출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vijay@thetricontinental.org](mailto:vijay@thetricontinental.org)  
[contact@thetricontinental.org](mailto:contact@thetricontinental.org).

# 현재라는 폐허에서

비자이 프라샤드



도끼가 숲에 나타났을 때, 나무들이 말했다.  
“저 도끼의 손잡이는 우리 중 하나다.”

(터키 속담)

아이티 영화감독 라울 펙의 영화 “청년 마르크스 (2017)”는 프로이센의 숲에서 시작한다.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농민들이 장작을 쪼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숲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러 오는 귀족과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농민들은 이들로부터 도망치지만 달아날 힘조차 없다. 귀족과 병사는 채찍과 창으로 쓰러진 농민들을 공격하고, 일부는 목숨을 잃는다. 농민들에게는 숲에 떨어진 장작을 쪼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1842년, 쾰른에 있던 청년 마르크스는 독일 농민에게 가해진 폭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농민들 자신이 어떠한 벌을 받을지 알고 있다고 썼다. 그 벌이란 흠씬 두들겨 맞거나 목숨까지 잃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왜 벌을 받는지는 알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벌을 받는가?

펙 감독은 기발하게도 이러한 딜레마로 영화를 시작했다. 현대 사회에서 예리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게 될 질문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빈민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벌을 받는 것인가? 빈곤과 전쟁이 기아와 폭격을 피하려는 난민을 양산했지만, 난민은 이동권도 없고 위기에서 벗어날 출구도 모두 막혀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펼쳐질 치욕, 굶주림, 죽음이라는 처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죄목은 모른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벌을 받는가?

도미니카계 미국 작가인 주노 디아즈는 2010년 참혹한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한 직후 아이티를 방문했다. 그는 “세상의 종말(Apocalypse)”이라는 인상적인 글에서 아이티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좀비 단계, 즉 경제적 연금술로 모든 국가를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좀비는 마력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활동했고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좀비는 어떠한 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새로운 좀비에게는 음식이나 집, 약을 찾아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벌인 것이다. 그렇다면 죄목은 도대체 무엇인가?

1부: 구조

# 인류의 국제적 분화



우리는 백성이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

- 아크바 일라하바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를  
궤멸시키겠다고 위협한다. 새로운 악의 축이  
탄생한 것이다. 악의 축은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용어였지만, 그 당시에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미국이 2003년에 불법적으로 침략해 폭격을 가한  
이라크가 있었다. 이후 미국은 리비아와 아이티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파괴했고, 현재 이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과 유엔의 점령 하에 있다. 미국은  
부상을 입은 용마냥 자신의 꼬리로 지구상의 여러  
지역을 강타하고 인간에게 불을 내뿜으며 국가를  
파괴하고 자신의 적을 물리치고 있다. 이 용이 당한  
부상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전략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공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서 어느 나라든 초토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항상 자신의 야심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해서 신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도 오류를 범하고, 굴종이 아닌 인류애의 편에 선 사람들은 신중하게 이러한 오류를 밝혀낸다.

제국주의의 영혼은 냉혹하다. 인간을 상대로 막대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인간이 받는 고통이라는 대가는 쉽게 잊어버린다. 제국주의는 1945년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1950년대에는 한국에 끔찍한 폭격을 가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베트남에 대량으로 폭격을 가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끝없는 전쟁을 수행하며, 이라크와 리비아를 파괴했음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러한 냉혹함은 제국주의의 영혼에 뿌리 깊게 박혀있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량 폭격을 가할 때 사실상 그 어떠한 우려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였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압력을 받은 폭격 지역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언론인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폭격 지역 인근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섬뜩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하마드 샤자드는 ‘풍랑 속 배처럼 땅이 요동쳤다’고 말했다. 에이친 시의 나비드 신와리 시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면서, ‘IS가 잔인하고 우리 에이친 시민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왜 우리가 폭격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은 폭격으로 공포에 떨었다. 나의 친척들도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초래한 전 지구적 기후 혼돈(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가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과 핵전쟁이 목전에 와 있는 멸망의 시대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잠시 멈추어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폭격에서 생존한

일본인들)의 심각한 이야기를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히로나카 토라코는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생존자로,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일기에 적어두었다.

1. 타버린 작업복들
2. 벌거벗은 여성
3. ‘멍청한 미국’이라고 소리치는 벌거벗은 여자애들
4. 수박 밭
5. 고양이, 돼지, 사람들의 시체. 지옥 세상이었다.

하치야 미치히코 박사는 원폭 투하의 여파에 대해서 저서 히로시마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썼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이는 언덕을 넘어 교외로 말없이 걸었다. 그들의 영혼은 망가졌고, 자주성은 사라졌다. 누군가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면, 히로시마를 가리키며 ‘저쪽’이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면 히로시마 반대편을 가리키며 ‘이쪽’이라고 대답했다. 심하게 마음이 망가지고 당황한 그들은 자동 인형처럼 움직이고 행동했다. 이러한 반응에 당황한 외부인들은 긴 행렬을 이룬 이들이 바로 옆의 잘 닦인 길을 두고 굳이 좁고 험한 길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이 외부인들은 자신들이 꿈의 세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탈출을 목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멸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원폭 생존자를 뜻하는 *피폭자*의 이야기는 꼭 필요하다. 이들의 증언은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며, 냉혹함과 혐오의 가혹함에 대항해 인간 생존의 온기를 제공한다.

카리브해 섬들이 폭풍과 홍수로 황폐해지고 남해(South Sea)의 섬들이 바다에 잠기면서, 허리케인과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재앙적인 자연재해는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 생존의 꿈이 자본에 잠식되듯 육지도 물에 잠긴다. 국제기구의 자료를 보면 정규직 취업은 지구상의 수 백만 명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에 반해 군 관련 일자리는 항상 있다.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청년들에게 펼쳐진 미래는 냉혹하다. 그렇기에 이들이 인류에 가지는 믿음은 매우 약하다.

**인류는 국제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전쟁과 비극이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 발발의 조건을 형성했지만 전쟁과의 관련성은 부정하는 국가에서 평화라는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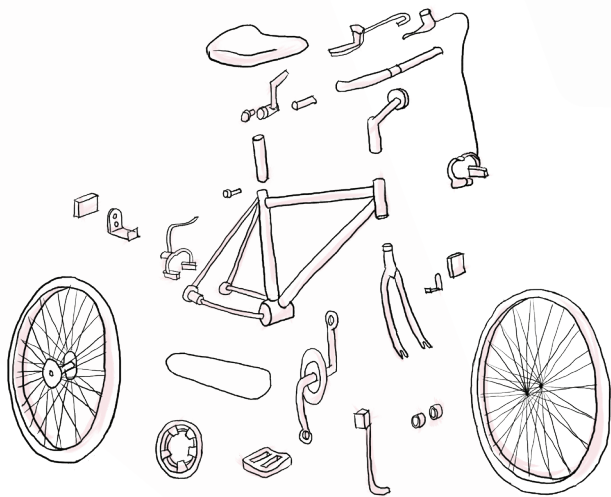
실업과 전멸, 빈곤, 기후 재앙, 전쟁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렇게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북미식 낙관주의에서 유래한 게임 이론, 회귀 분석, 다단계 모형, 추론적 통계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이해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엘리트의 역할을 순진하게 믿고 있는 위와 같은 이론적 접근법은 우리 세계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설명을 늘어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세계화 고유의 위기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실패, 그리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신파시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부르주아 사회과학논리가 근본적으로 꿈꾸는 세계, 환상에 지나지 않는 세계가 아닌, 제국주의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어떤 국가를 폭격하려 하고, 국제금융기구(IMF)가 그

국가에서 1파운드의 살을 잘라내려는 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이 세계의 국가들이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기 보다는 탄압에 사용하는 무기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거리에는 사회 사업가나 예술가보다 경찰이 더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세계화



굶주린 영혼들은 알고 싶어한다.  
사람들이 1인당 소득만큼을 버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전 세계적으로 사회생활이 메말라 가는 원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다국적 기관과 이를 둘러싼 지식인이 설계한 정책 플랫폼이다. 이 지식인들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노동보다는 기업의 독창성이라는 부르주아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있어 역사의 원동력은 자본 즉, 기업과 기업가일 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현재를 향상시키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을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이 지도자들은 마법사처럼 무의 상태에서 공공 정책을 불러내고, 국제기구를 이용해 자신의 아젠다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대처와 레이건은 국가가 보호하던 공유지를 민영화하고 사회자원이 시장에 잠식되는 것을 지지했다. 그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 지도자들은 민영화와 시장잠식을 지지하게 되었을까?

인류역사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방법은 이 문제를 해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생산양식의 구조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정부가 도입했을 뿐이다. 자본주의는 항상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새로운 자원과 기술을 찾는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상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 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자본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자본의 전 지구적 야심을 저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기술 장벽이 무너지고, 노동계급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자본은 이제 전차(戰車)에 올라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상을 내려다보고, 컴퓨터에 정보를 축적하며 가장 값싼 노동자와 좋은 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이 신적 존재가 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윽고 자본을 위한 진정한 마법의 시대가 열렸다. 전 세계 공장으로 노동자가 물밀듯이 유입되고, 취약한 국가들의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가 개발되면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노동자와 농민이 가졌던 국가 권력은 이제 완전히 자본가에게 넘어갔다. 이제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세계화를 위한 정치적 조건을 형성한 것은 서구 금융체제가 유발한 제3세계의 부채 위기였다. 1979년 볼커 쇼크(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폴 볼커의 이름에서 유래)로 불리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제3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볼커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달러 금리의 상승은 리보 금리(LIBOR, 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가 급등했음을 의미했다. 이제 제3세계 국가는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시중은행과 서구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15개 과다채무국의 사례가 실질적인 사례이다. 1970년에 이 15개국의 총 공공외채 규모는 179억 달러(총 GNP의 9.8% 수준)였다. 부채 위기가 한창인 1987년이 되자 이 수치는 4,022억 달러(총 GNP의 47.5%)로 상승했다. 이 대출에 대한 채무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 상환 규모도 엄청났다. 1970년 최고 상환액이 28억 달러였던 것에서 1987년에는 363억 달러로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급기야 1991년에는 상환 규모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제3세계 국가의 총 외채는 1조 4천억 달러로, 이들 국가의 총 수출액의 126.5%에 해당했다. 이는 시중은행과 서구 정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재화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제3세계 부채 위기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적 재화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유엔 아동기금인 유니세프(UNICEF)는 이러한 부채 위기로 인해 1980년대에 이들 국가의 국민 평균수입이 2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잃어버린 10년이 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7개국은 1인당 의료비를 25%, 교육비를 50% 줄였다. 유니세프는 아동에게 초점을 맞췄다. 유니세프는 부채 위기로 1988년에만 50만 명의 어린이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는 세계 금융체제로 인해 매일 4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탄자니아의 줄리어스 니에레레 대통령은

‘빛을 갠기 위해 아이들을 굶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상황을 날카롭게 짚었다.

제3세계 부채 위기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의 정치적 자신감이 무너졌다. 이들 국가의 정부가 다국적 기업과 ‘자유무역지대’와 여러 혜택을 협상할 때 제시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식민지배를 벗어난 이들 국가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지도자의 결의와 민족주의 엘리트의 문화적 자신감을 약화시킨 것도 부채 위기였다. 독립성 부족은 외세에 대한 의존성을 낳았다. 부르키나 파소의 토마스 상카라는 ‘너를 먹여 살리는 자가 너를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새로운 세계화 체계는 바로 이 아이들의 무덤과 제3세계 국가의 취약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 새로운 역학관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독점 기업의 축적전략에 동원되는 수백만 명의 새로운 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의 창출이다.

첫째로, 위성통신, 전산화 및 컨테이너 선박과 같은 신기술은 기업에게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상품을 최대한 빨리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 기업은 공장을 쪼개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설립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른바 생산의 분절(*disarticulation of production*)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업은 독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세 정보로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지역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 세워진 각 공장은 최종 상품의 한 부분을 생산한다. 자본은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짓거나 하나의 거대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한 시절은 끝났다. 이제 자본은 투입 비용에 변화를 적게 주고도 여러 곳에 작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게다가 컨테이너 수송 같은 운송의 발전으로 자본은 상품의 일부를 신속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을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하나의 상품이 한 곳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공장에서 상품의 각 부분을 생산하여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 10월 혁명, 중국 혁명, 제3세계 프로젝트가 만들어 낸 장벽은 1980년대 제3세계 부채위기와 소련의 몰락, 외국 자본에 개방한 중국 노동시장으로 인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요구로부터 보호받았던 수백만 노동자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먹잇감이 되었다. 각 생산 공정 단위로 쪼개진 공장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자본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들어가 지적재산권을 사회가 아닌 자본에 귀속시켰다. 이전에는 제품 그 자체가 아닌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과학 기술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 가난한 국가의 제약산업이 빈곤층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상품의 역분석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킨 GATT 최종 라운드 이후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제 그 상품 자체에 특허가 부여되며, 이는 자본이 생산자의 혁신에 관계없이 해당 상품 생산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가 북미와 서유럽 같은 자본의 중심지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보호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는 나노 기술, 게놈학 및 유전자 이식에 대한 특허를 통해 주요 식량 기업에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초월하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권력을 제공했다. 게다가 ‘정보 기업’에게는 ‘디지털 식민지화’라는 새로운 야심을 추구할 기반을 제공했다. 새로운 소비자 감시 수단과 서구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통해 대형 ‘정보 기업’이 디지털 식민지화라는 새로운 욕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도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인터넷의 원칙인 ‘망 중립성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식민지화의 또 다른 지표이다.) 이것이 바로 분절된 생산 구조의 새로운 법적 체계였다.

경제학자 오마르 다히가 말한 것처럼, WTO는 이른바 ‘대타협’의 결과로 생겨났다. 부채 위기에 시달렸던 남반구 국가 대부분은 농산물과 원료 수출을 대가로 노동자와 시장의 보호와 산업 정책을 포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산업과 농업의 경제 주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기술 개발과 수백만 명의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 및 새로운 지적재산권 규칙 덕에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글로벌 상품 사슬을 따라 두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첫째, 전체 생산 공정을 다른 국가로 옮겼다. 이른바 외국인직접투자(FDI) 아웃소싱이다. 물론, 다국적 기업은 여전히 생산을 위한 물리적인 생산 인프라 건설에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둘째,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한다. 정치 경제학자 존 스미스가 명명한 이러한 ‘팔 길이 아웃소싱’으로 다국적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자본을 절약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게 되었다. FDI든 팔 길이 아웃소싱이든, 자본에게는 저렴하고 취약한 노동자를 이용한 상품 생산에 인건비 차익 거래를 이용한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사회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 지형은 노동조합과 국유화라는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제도적 틀을 제거하며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킨다. 언젠가 대체 가능한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온갖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고,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팔 길이 하청업체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한 상품의 생산 과정 전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쟁취했을 때, 과연 그 국가가 생산 공정의 일부만을 국유화할 수 있겠는가? 노동 조합과

국유화 두 가지 수단 모두 노동자가 사용할 수 없다.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동자의 운동은 강제수용소 같은 수출가공지구(다국적 기업에 우대혜택 제공)와 마킬라도라(멕시코의 외국계 노동착취 공장) 때문에 좌초되었다.

팔 길이 아웃소싱으로 북반구 기업은 더 이상 생산 공정에 자본을 투자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이키나 애플, 그 밖의 다국적 기업들은 더 이상 공장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브랜드 기업이다. 이들이 브랜드 사용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가히 천문학적이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생산을 하는 기업에 재투자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기업이 막대한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본을 비생산적인 금융 카지노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자금을 생산 기업이나 공익에 투자하기보다, 생산이라는 중간 단계 없이 돈이 돈을 불리는 금융 회로에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기업 중 일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거부감 들 정도의 부자가 된 것은 당연하다. 옥스팜(Oxfam)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단 8명이 전 인류의 하위 50%가 소유한 부를 합친 것과 맞먹는 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의 분절에 따른 팔 길이 아웃소싱과 생산에 투자 할 필요가 없게 된 결과로 팽창한 금융 부문이 그들의 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부유층과 기업은 엄청난 양의 현금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그 돈을 쓰는 데에도 인색하게 굴었다. 북미 기업만해도 미국 내에 1조 9,000억 달러, 해외 계좌에 1조 1,000억 달러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은행의 현금 보유액은 1조 달러이다. 미국에서만 축적된 현금이 총 4조 달러이다. 여기에 유럽과 일본의 대기업과 은행이 보유한 현금 보유액을 합산하면 총 7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 및 기타 조세 도피처에 쌓여 있는 '검은 돈'은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다.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조사와

국제결제은행(BIS)의 수치에 따르면 조세 도피처에 예치된 금액은 (2007년 기준) 약 5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조세 도피처에 있는 이러한 역외 자산은 세계 총 GDP의 약 10%에 달한다. UAE 등 일부 국가의 역외 자산은 해당 국가 GDP의 70% 이상이다. UAE,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엘리트 계급은 자국을 전 세계에서 GDP 대비 해외 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축된 막대한 양의 현금 자산은 가장 부유한 기업과 개인이 자신들이 겪어야 할 스태그네이션(장기 저성장)을 세계로 외주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 현금을 사회적 노동의 영역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낮추었다. 이러한 자본의 구조적 방해, 즉 ‘투자 파업’보다 더 큰 스캔들은 없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식적 언어를 이용해 ‘세금 파업’이라는 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산의 주인이자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조세 제도에 맞서 파업을 해왔다.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자금을 숨기거나 세법을 개정하여 부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부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주식시장을 부양하거나 다양한 자산 버블을 만들 때만 사용된다. 자본이 가장 저열하게 사용되는 곳은 금융의 중심지인 월 스트리트이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대란은 2007-2008년 미국 주택 시장의 붕괴(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버블의 폭발에서 잘 드러났다. 주택 시장의 호황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그린스펀 뜻이라고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주택 가격과 같은 자산 버블을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자본을 시장에 대거 공급한 정책으로 유명했다.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나 연금제도가 없는 노령의 미국 중산층 거주자에게 주택 가격 상승은 은퇴 생활의 전제가 되었다. 주택이 주요 자산이었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은 기꺼이 그린스펀 뜻에 응했고,

자신의 단기 이익을 위해 통제 불능이 될 때까지 금융 부문에 환호했다. 그린스펀 뜻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토대로 한 중산층과 노동계급 상류층의 북아메리카 드림을 더욱 강화했다.

주택 가격이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급 상류층에 은퇴의 꿈을 심어주었다면, 은행의 신용은 그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를 훨씬 넘어서 소비하도록 했다.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의 ‘최종 구매자’로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된 모든 자원과 상품, 서비스를 빨아들인다. 미국의 소비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이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지구 전체의 에너지 중 최소 1/4을 소비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미국 거주자처럼 산다면, 그 소비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개의 지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린스펀 뜻과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신용으로 소비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 소비자는 중국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상품 생산국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미국 소비자 부문에 유입된 저렴한 신용 거래는 이러한 금융 시스템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이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합리성은 시스템을 한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혼란에서 혼란으로 옮겨 놓는다.

과도하게 팽창된 미국 주택 시장 버블이 터지자 주요 통화주의자 중 하나인 그린스펀은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 상원에 출석한 그린스펀은 헨리 왁스맨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그린스펀: 사익추구 집단, 특히 은행 및 기타 기관이 자신의 주주와 회사 지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왁스맨: 다시 말해, 의장의 세계관, 즉 이념이 옳지 않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군요.*

그린스펀: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입니다. 40년 이상 동안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린스펀의 이념, 즉 그의 이론은 결함이 있었고, 그 자신은 충격을 받았지만 경제계나 공공 정책 틀은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 통화주의는 아무 탈 없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거시 경제 정책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전문가 집단이 쥐락펴락한다. 이들은 이론이라는 영역에서 정치 위에 군림했다. 그린스펀 자신이 미국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한 그 이론 말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 장관은 ‘오늘날 쿠데타 위험은 탱크가 아니라 은행에서 비롯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보수를 많이 받는 로비스트와 처세에 능한 은행가들이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워놓으면 군사 쿠데타는 필요하지 않다.

세금 파업은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사회적 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개인이나 가족이 소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이러한 부는 자선 활동에 대한 병적 숭배를 가져왔다. 빌 게이츠가 의약품 관련 활동으로 박수 받고, 다른 부유한 남성과 여성이 빈곤 퇴치의 투사로 여겨지면서 부유한 기부자가 우리 시대의 영웅이 된 것이다. 한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도출된 요구를 거스르고 사회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요 세력이 바로 이러한 자선사업가이다. 이런 식으로 점차 민주적인 기관이 아닌 기부자의 의제가 공공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페미니스트 포럼의 사라 무카사는 ‘경제와 개발에서 탈정치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하며, 기부자가 이러한 [새로운 개발] 의제를 완전히 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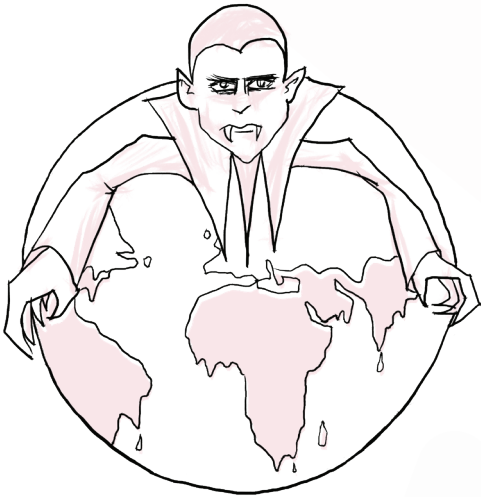
세금 파업은 (거대 자본의 전면적 지원을 받는) 정부 정책 입안자의 주장, 즉 공무원은 공공 재정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나타난다. 정부는 자본이 국고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더라도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정부가 사회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러한 사회적 재산의 일부를 떼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파업을 수반하는 재정 책임은 곧 정부 재정의 빈곤화를 말한다. 그러니 사회에 대한 압박이 국가로부터 사회로 옮겨가는 것도 당연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파괴한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가슴이 하나로 엮어 놓아야 했던 것이다. 세계화의 사회적 비용은 사회를 소모시켰고, 그로 인해 느슨해진 사회적 유대는 주로 여성이 가정에서 3배는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 신자유주의



절망적인 사회의 철학,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고, 계획할 수 없네  
백인 사회인 IMF와 보조금,  
거지처럼 우리는 계속 그들을 향해 손을 뻗네.

- 칼라마샤카의 노래, 니 와카티

국민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위임을 받은 현대 국가라면 모든 사회 보장을 일거에 중단할 수 없었다. 보육, 교육, 교통, 신선한 공기, 복지, 연금 등등은 모두 민중이 요구해 국가가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대 문명의 최소 기준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를 낳은 것은 세금 파업, 재정 책임 및 사회 재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이다.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세계화에 대한 부르주아적 공공 정책 솔루션의 산물이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세금 및 투자 파업과 재정 책임(정부의 예산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은 공공 예산을 고갈시켰다. 부르주아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단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힘겹게 얻은 공공 자산과

상품화되지 않았던 자연까지 경매에 부쳐졌다. 현대 국가는 민영화를 통해 빈약한 재정을 메울 자금을 조달했다. IMF 같은 국제 기구와 상업은행은 공공 재정을 더욱 과감히 삭감하지 못하는 국가의 채권을 하향 조정해서 지불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단기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 서구의 기구가 ‘개발도상국’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2007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을 기준으로 ‘개도국 중 단 86개국만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등급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이 중 15개국은 2004년 이후 평가를 받은 적이 없고 70여개의 개도국은 (2006년) 이전에 평가를 받아 본 적도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같은 민간 신용평가사가 개도국을 무시했고, 이들 국가가 상업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IMF는 종종 불리한 평가등급을 매겨 개도국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인다. 개도국은 GDP가 과소하게 보고되고 (개도국에서는 저가에 가치 있는 상품을 판매하지만, 상품이 제국주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 고위험 채무자라는 편견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손해를 본다. 이것이 금융-개발의 함정으로, 자본이 빈약한 국가는 영원히 그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국가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만이 국가 예산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민영화로 조달된 자금은 계속해서 비싼 에너지 수입과 부채를 상환하는 데 새어나가고 있다. 이 돈은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부를 늘리는 데 사용되지도 않고, 국민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에도 거의 투자되지 않는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절도이다. 미국의 조세운동단체 글로벌금융건전성(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과 노르웨이 경제대학의 응용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외부에서 개도국으로 유입된 총 원조, 투자 및 소득은 1조 3,000억 달러에 달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해당 연구에서 동년도 개도국의 자금 유출 경로를 함께 살펴본 결과, 유출 금액은 3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개도국에서 서구로 2조 달러라는 돈이 빠져 나간 것이다. 1980년 이후 이렇게 유출된 부는 총 16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 식민지의 부를 탐식하던 식민주의가 절정이었던 시기가 아닌데도, 부유한 국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흡혈귀처럼 빈곤한 국가의 부를 빨아들었다. 그렇다면 개도국에서 빠져 나가는 이 돈의 특징은 무엇일까? 4조 2,000억 달러는 부채 상환(총 원조 금액의 4배), 궁극적으로는 북반구 국가로 송금되는 외국 기업의 사업소득, 그리고 규제 받지 않는 불법 자본 도피('검은 돈'뿐만 아니라 자본 손실 규모가 7,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대금 청구서 조작 포함) 등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그 결과 남반구 국가는 기본적인 사회 발전을 위한 자금을 쉽게 구할 수가 없다.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의무가 사회 개발을 민간 부문으로 돌리는 북반구 국가에서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사실 북반구 국가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경험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업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로 수익을 송환하도록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 것이 국가 예산상의 자산을 감소시켰다. 또한 막대한 군사비와 안보 서비스 지출이 국고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돈이 교육과 의료 등 필수 사회 복지를 위해 쓰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할 수단을 찾는 것이 시민의 개인적인 의무가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이 공부하거나 병이 들면 개인 부채가 증가한다. 청년과 해고된 장년층 노동자는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한 교육이 개인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 영국은 5,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 공공재의 민영화 모델은 전 세계로 빠르게 수출되었다. 중국에서 남아공, 인도에서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학자금 대출은 증가일로이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85%가 어떤 형태로든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2012

년에 미국 거주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2조 7,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의 40%가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개인이 파산을 선언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이다. 이러한 ‘미국식’ 민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의 증가를 불러왔다.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11년에 5,250만 명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해졌다. 세계은행과 WHO는 매년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의료비로 인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극심한 빈곤’의 기준선을 하루 수입 1.90 달러 이하에서 3.1 달러 이하로 상향하면 연간 1억 8,0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성과인 무상 대학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질식시킨다. 그들은 졸업 후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듣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무급 인턴십을 찾아 헤매느라 시간을 보냈고,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인턴십 시장은 천문학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영어 능력 향상, 값비싼 사립대학원 입학, 그리고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고임금 일자리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가망 없는 희망을 믿기 위해 ‘코칭’ 수업을 찾는다. 이는 지배적인 사회질서에 도전하거나 예술이나 과학 등 혁신적인 사고를 소개하는 강의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대학은 사회적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개인적 성공을 위한 도약대가 되고 있다. 이는 탐욕이 아니라 부채로 인한 절망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인 지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다르에스살람 대학의 이사 시브지 교수는 ‘대학이 논쟁의 중심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우수성의 중심지가 되기를 갈망한다. 논쟁의 중심지가 되면 우수성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우수성’이라는 담론은 새로운 사고,

특히 노동자, 농민, 실업자의 경험에 뿌리를 둔  
대항 헤게모니 사고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것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경제는 어떻게 성장 했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채와 새로운 기술 및 자산의 창출에 기반한  
소비주의의 야성적 충동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도박을 감행했다. 특히 이러한 기술과 자산이  
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부를 생산해  
그 부를 어떻게든 사회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같은 도박은 실패했다. 대신,  
소비주의와 신기술의 출현은 부채를 초래했고,  
자산의 팽창으로 세계 경제, 즉 파생 문명이자  
속임수와 절도에 기초한 문명은 더욱 요동쳤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빚을  
져야 했다.

부채는 계속 경제를 활성화하고 과잉 생산된  
제품을 팔 곳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기 위한  
광고가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소비 하위 문화를 생산하고 더 세밀하고 정교한  
욕구를 타겟팅하기 위해 시장 세분화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새 전화기나  
자동차를 구입하듯이) 필수품이 아니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구형 제품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의도적인 상품의 진부화는  
포화된 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연간 쓰레기  
생산량은 13억 톤, 즉 하루 약 1,100만 톤에 달한다.  
게다가 구매 상품의 99%가 6개월 이내에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연구는 2025년쯤이면  
하루 쓰레기 배출 총량은 3배가 될 것이고, 2100  
년까지 연간 쓰레기 배출 총량이 40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1950년 이후, 세계는 90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그 중 9%만이  
재활용된다. 위축되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이  
의도적인 상품 진부화의 결과로 해저 바닥에 폐기물  
산더미가 쌓이고,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지에서  
발생한 독성 가스가 귀중한 식수와 비옥한 땅으로

침출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쓰레기의 양과 자연 파괴로 자본주의만의 열반(涅槃)으로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책을 넘어 바람직한 문화 아젠다로까지 작용했다. 상품의 세계라는 약속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던지는 미끼이다. 하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메시지는 인간이 아니라 기업인 양 자신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기업 문화 정서 또는 기업가 정신 문화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매혹했지만, 많은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인류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자원이 적은 사람은 자기계발과 자기 동기부여의 세상에서 쉽게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의 전제가 배경과 우연인 세계에서는 자기주도적인 개인이라는 가정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점점 더 개인의 능력이나 적극적 노력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성공이라는 비현실적인 동인이 주도하는 사회는 우울증과 불안을 낳는다. 실패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사회학자 크리스티나 샤프의 말처럼 ‘신자유주의의 정신적 삶’은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훼손한다. 소비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를 우선시하여 연대 문화를 약화시킨다. 그 결과, 불안이 확산되고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된다. 더 피부에 와 닿게 얘기하자면, WHO는 지난 45년 동안 자살률이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WHO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자살은 15세와 44세 남녀의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불평등한 사회에, 특히 청년층에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시대의 빈곤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그야말로 비참하다. 우선, 매일 22,000명의 아동이 가난으로 사망한다. 매 10초마다 한 명의 아동이 굶주림으로 사망한다.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가계 부채 비율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중산층이 부채 중심의 소비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사회적 노동에서 착취한 세계의 부를 극소수의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의 고통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으며, 설사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비참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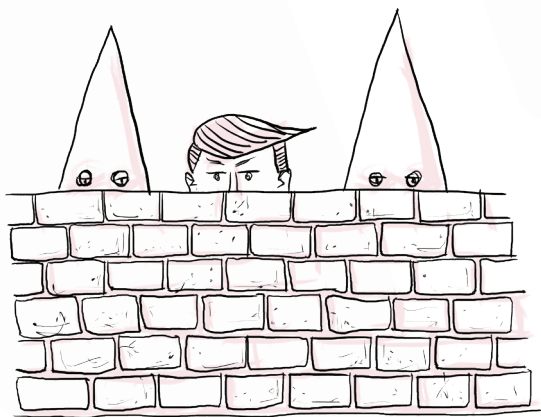
우리가 이 지구라는 빈민가 행성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회과학이 제쳐두었던 굶주림, 좌절, 황폐, 소외, 분노와 같은 오래된 범주들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세금 파업을 철폐하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안보, 감시, 리스크 완화, 민감도 분석, 위험 등 새로운 통제 메커니즘의 필연성을 호소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들먹이며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같은 위대한 발명품을 이용해 대중을 우리에게 가두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부는 이제 '안보'를 위한 군수물자를 축적하는 데 더 쓰이고 있다.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가 발간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에 소요되는 총 연간 비용은 약 13조 6,000억 달러로, 이 중 절반인 6조 6,000억 달러는 군비로, 4분의 1인 3조 5,000억 달러는 국내 안보에 지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의 총 비용은 세계 GDP의 13.3%에 달한다. 공적개발원조 약속 금액이 GDP의 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와 폭력 비용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시장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연적으로 국가 정책의 사회적 측면을 빈곤하게 만들고, 군사적 측면에 탐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불평등 격차의 확대와 지구 곳곳을 뒤덮은 깊은 절망감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총은 사람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 신파시즘



나는 그저 가난한 사람을 원하지 않을 뿐이다.

- 도널드 트럼프

신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보고 본능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 이르는 여러 독재자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好戰的)인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 트럼프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국제 금융 및 외교 기관에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반이다.

트럼프와 유럽의 신파시스트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쓰는 수사는 사뭇 약하다. 그들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 임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화에 대한 실질적인 비판은 정책 수준이 아니라 수사적 또는 정치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 트럼프와 신파시스트가 경제 주권 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오직 유권자 앞에서 연설할 때뿐이다. 일자리 감소와 무역 정책에 대해 불평하지만, 신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 그들은

물질적 모순에 갇혀 있다. 금융 구조를 지탱해주는 다국적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세계 대다수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신적 생명의 역(逆)이 신파시즘이다.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문화는 성공은 개인적인 여정으로 자기 주도성이 우수성과 부를 이끌어낸다는 태도를 낳았다.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나는 것이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아인 랜드의 소설 파운틴헤드(1943년작)의 주인공 하워드 로어크로, 그는 자신과 같이 재능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생자(secondhand, 자신의 순수 아이디어가 아닌 남들의 생각을 빌려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를 멀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승리’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맞춰 살기조차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사람에게 실패란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가 실패를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시각에서 본 실패는 자신의 한계나 체제의 구성 방식에 따른 사회적 발전이 만들어 낸 장벽이 아닌, 다른 사람(희생양) 탓이다. 아인 랜드의 규칙에 따라 실패한 사람은 비난의 화살을 돌릴 다른 사람을 찾느라 전전긍긍한다. 약 한 세기 전에 에른스트 블로흐(독일 맑스주의 철학자)가 쓴 것처럼, 그것은 ‘성취의 속임수’로, 거짓되고 잔인한 공동체가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체를 대신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신파시즘은 희생양을 비난한다.

신파시스트가 약속하는 것은 민족국가나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 주권보다 훨씬 약하다. 그들의 언사는 경제 민족주의로 번쩍이지만, 실상 정책은 문화 민족주의의 경계에 갇혀 있다. 그들은 이슬람 사원의 침탈과 히잡이 없는 유럽, 무슬림 없는 인도, 멕시코인 없는 미국 같은 문화적 동질성의 환상에 집착한다. 그들의 민족주의는 반이민 정서에 기반한다. 무역은 교환의

원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인종차별에 관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기술에 의한 서구의 생산성 증가가 어떻게 일자리를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거의 없다. 무역은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대량 유실에 극히 사소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불쾌감을 느낀 당사자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경제 불안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장벽 건설’(미-멕시코 국경)이나 ‘무슬림 금지,’ ‘소고기 금지’(인도)를 비롯해 ‘마약 밀매업자, 권총 강도, 게으름뱅이’와의 전쟁(필리핀)과 같은 슬로건은 고통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가로막았고, 그러면서 진지한 경제 논의는 방치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정치 형태인 신파시즘의 잔인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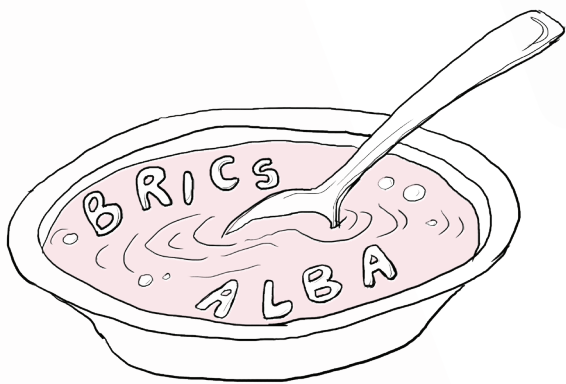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믿는 아인 랜드의 신봉자들은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독일 피난츠플라츠, 인도 달랄 스트리트, 영국 시티 오브 런던 등의 금융 중심가에서 자리를 잡고서 주가 상승과 조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한 유동성이 금융권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을 주도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은 재산이 압류된 사람들 보다는 아인 랜드의 신봉자들을 편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富)는 신파시즘의 문화적 저속함이 다소 당황스러울지언정 그 안에서 안락함을 느낀다. 세금 파업은 여전히 신성불가침으로 남아 있다. 투자 파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중 어느 것도 가진 자보다는 약한 자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에 꽤나 만족하는 신파시스트의 ‘민족주의’로 위협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신파시스트는 자신의 호전성을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안보’ 같은 문구 뒤로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폭력을 신봉하며, 이를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요법으로 사용하려 한다. 재식민지화에 대한 요구는 천연자원 절도를 동반한다. 신파시스트가 벌이는 대내외적 전쟁은 문화 주권이라는 그들만의 환상이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다.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세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 무력을 이용해  
외국인이나 외부인, 또는 2류로 보이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다.



#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그 세력이 약해질 때 폭력에 의존한다

- 우고 차베스

신자유주의와 신파시즘 둘 다 인류의 아젠다를 세계화로 인한 모순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입주민만 출입 가능한 단독주택 단지, 폐쇄적인 공동체를 지칭) 문명이 스스로를 사회에 접목하면서 사람은 일회용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이처럼 비참하다.

지금의 새로운 생산 구조가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 외교적, 법적 착취로 유지되고 있음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국가가 북반구의 다국적 기업에만 득이 되는 제도적 장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정책이 재산권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때, 북반구의 기업 언론과 군사 기구는 전면적 행동에 나선다.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등의 국가에 가해지는 압박은 명백하게 **제국주의가** 표출된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초독점주의 팔 길이 자본주의 시대에 각 국가가 활용하는 추가적인 경제력이다.

현 시기에는 미국 정부가 제국주의 구조의 중요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이라는

동맹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콜롬비아 등 주요한 지역 동맹국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은 지속할 수 없는 일련의 모순을 고수해야만 한다. 미국은 소위 자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라이벌이 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금 그러한 라이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추산에 따르면 2017년에 미국이 전 세계 최대 경제규모(18조 달러, 세계 경제의 약 24%)를 자랑하지만 그 뒤를 중국이 쫓고 있다(11조 달러, 세계 경제의 14.84%). IMF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7%였던 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한참 낮은 1.6%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는 2050년에 중국이 전 세계 최대 경제국에 등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 역학은 더 이상 저임금 노동에 기반하지 않으며, 기술주도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1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특허권을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특허 신청 건수는 미국 기업이 신청한 것의 두 배였다. 사실 2015년에 전 세계 특허의 2/3가 중국에서 신청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는 지적 재산권 기반 팔 길이 아웃소싱 축적 전략에 중국이 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라이벌 국가가 강력한 축으로 부상한다면, 서구 사회가 유리한 생산의 분절과 전 세계적인 자본의 축적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 즉 팔 길이 아웃소싱, 지적 재산권, 그리고 서구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세 기둥이 도전 받고 있다는 징후가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팔 길이 아웃소싱과 지적 재산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둥인 폭력의 독점을 뒤흔드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2016년에 미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뒤를 따르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이 지출한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을 상회했다. 6,112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 미국은 2위를 차지한 중국(2,157억 달러)을 가볍게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미 국방비 인상안은 국방비 지출 규모를 더욱 늘릴 것이며, 인상액(약 700억 달러)만해도 국방비 지출 3위를 달리는 러시아(692억 달러)보다 높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국가에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운영하며 엄청난 군사적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해외 군사기지는 다 합쳐봐야 서른 개 정도다. 중국도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부티에 있는 대규모 미군 기지에 밀려 존재감이 미미하다. 러시아의 해외 군사 기지는 주로 동구권 국가(주로 중앙아시아)에 있고, 아시아 끝자락(시리아, 베트남)에 두 개의 기지를 운용 중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시점에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시리아 사태와 같이 미국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하는 것을 막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열세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이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거나, 서구가 만든 제도권 밖에서 자신들만의 축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실크로드 프로젝트(일대일로 사업)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적재산 개발 등을 통해 생산과 축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고, 이는 서구의 기업들이 이익을 누려온 생산의 분절 프로세스를 저해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중국이 서구의 금융시스템에서 서서히 빠져 나와 자국의 잉여 이익을 다른 곳에 예치하고, 중국 제품의 판매를 위해 서구 시장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가 직면한 복잡한 과제는 바로 이 같은 라이벌을 통제하는 것과

이들이 서구 사회가 만든 체제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간의 모순이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토가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는 것과 중국의 고립화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크라이나와 북한과 같은 뜨거운 분쟁(Hot Conflict)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차가운 분쟁(Cold Conflict)이 서구와 중-러 간 싸움의 척도이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구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줄 생각이 없다. 중국은 미국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미국을 끊임 없이 괴롭히는 문제이다. 일본과는 상반되는 중국의 행동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로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 정부는 두 번이나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달러화 가치의 개선을 위한 엔화 환율 조정에 나섰다. (1985년 플라자 합의, 1995년 역 플라자 합의) 2010년에 일본 국민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철거를 위해 개혁 성향 정부를 선출하자,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사임을 강요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 그러나 중국에게 자국 통화 가치를 재조정하고 정치 체제를 미국이 좌우하도록 강요하기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의 항로 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군 기지와 영공 침범 등으로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무력을 내세운 위협은 나토가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구소련 연방 국가들과 독일이 신생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맺은 최소한의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독일의 한스 디트리히 겐서 독일 외무장관은 에두아르트 셰바르나제 소련 외무장관에게 ‘통일 독일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나토가 동쪽으로 절대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나토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는 명백히 나토가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토의 확장은 단순히 동유럽 국가들을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들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서구가 지배하는 정치 경제의 축수가 미치는 범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계화라는 벨벳 장갑 안에는 무력이라는 철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소위 G7 국가라는 세계의 주인들은 밀실에서 그들만의 협잡을 계속한다. 이들은 국제 기구에서 정책 영역을 통제하고, 자신들은 여러 보조를 받는 자유를 누리지만, 남반구 국가에는 그러한 자유를 거의 주지 않는다. 남반구 국가가 자국의 식량안보 요건에 대해 받는 압박이 그 중 하나이다.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이들의 ‘정말 좋은 친구들(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블록을 지칭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연합이 사용하는 이상한 용어)’이 주도하는 서비스자유무역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이다. 이 TISA 협상에 참여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은 대체로 고소득 국가이고, 저소득 국가는 단 두 곳(파키스탄, 파라과이)뿐이다. TISA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와 대기업이 데이터 수집 국가의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TISA 의제의 핵심은 기존의 개발 프로젝트는 제쳐두고, 그 대신에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빈곤 감축 전략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UBS 보고서에 따르면, 이커머스 의제는 빈곤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커머스로 인해 남반구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극도의 자동화로 저숙련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극도의 연결성을 통해 재분배될 수 있는 상대적 이득도 기술 능력 부족으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즉, 디지털 식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 자본에게 이득이 되지만 노동자와 사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율성 수익(비용절감 등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수익 증대)을 거둘 힘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FANGs)과 같은 소수의 기업에 주게 될 것이다.

TISA 외에도 유라시아를 사이에 끼고 서구가 주도하는 무역 체제에는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Atlantic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이 있다. 둘 다 참여국을 서구의 무역 헤게모니 네트워크에 구속하고 경제력이 약한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의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협정 모두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때때로 유출되는 사실 외에는 전체 협상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지도 않았다. 이른바 북반구 선진국이 나머지 ‘파트너’ 국가들을 위해 아젠다를 설정하는 TTIP와 TPP 앞에서는 국내법도 무력화될 것이다. 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유출된 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지적재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각국에 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문건은 투자 관련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의 제안에서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보통 서구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서구의 압박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들의 규칙은 계속해서 서구의 이득을 위해 남반구 국가의 경제를 종속시킬 것이다. 서구 지도자들은 서구의 지대추구형(rent seeking,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를 독과점하는 방식으로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대형 독점 기업에 이득을 안겨다 주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약화시키는 무역 규칙을 모두 거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역 협상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 압박의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TPP를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TPP를 거부한 것을 보고 미국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TPP 거부의 진짜 핵심은 무역 규칙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무역 규칙을 새로 쓰고 글로벌 생산과 축적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라이벌의 출현이다. 2015년 10월 5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

우리는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규칙을 쓰도록 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TPP가 핵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핵심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세계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라이벌의 출현을 막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더 거친 언어를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2대 경제를 가진 자주 국가로서의 중국은 '세계 경제의 규칙'을 쓰는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근간에는 바로 자신이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서 제국주의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로 *제도적 측면에서*, 북반구 국가들은 WTO와 같은 일련의 기구를 추진해 무역과 개발만을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했다. 동시에, UN과 같은 기존의 기구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어 무력 사용과 관련한 명령을 내리게 했다. 두 번째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북반구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안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민간 부문의 이득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장만이 발전을 위한 유일한 논리적인 길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 플랫폼을 따르는 소위 세계화된 기구, 이것이 새로운 제국주의가 되었다. 신파시스트들이 자신의 문화를 위협한다고 불평함에도 말이다.

2000년대가 되면서 신제국주의는 첫 번째 주요한 국가적 수준의 도전에 직면했다. 2003년, 다수의 UN 회원국은 이라크로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욕망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WTO 칸쿤 회의에서 신흥 경제국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북반구 국가들의 아젠다를 막아냈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이 두 사건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프로젝트 출현의 기틀을 제공했다. 초기 브릭스 블록은 어떤 것이었는가? 브릭스는 반제국주의 플랫폼이 아니었다. 브릭스가 반제국주의 플랫폼이었다면 브릭스 국가들은 제도적, 사상적 수준에서 제국주의에 맞서야

했다. 브릭스는 단순히 ‘일극체제(unipolarity)’에 제도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자 다극 세계를 만들기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었다.

확실히 브릭스는 북반구가 만든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적 기구를 수립하고자 했다. 세계은행에 대항해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IMF 대신 긴급외화준비협정(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했다. 피치, 무디스, 스탠다드앳퍼어스 등과 같은 패권을 가진 신용평가사에 대항하는 남반구 신용평가사를 설립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국가 간 무역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도 있다. 가장 신빙성은 낮지만, 브릭스가 새로운 안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화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 지배계급의 본성(그리고 특히 브라질과 인도에서 우파가 정권을 장악한 것)을 감안하면 브릭스 국가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사상적 대안이 없다. 브릭스 국가가 채택한 국내 정책은 *남반구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 시민의 삶은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리고 한때 제3세계 그룹에서 함께했고 자신들보다 취약한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까지 상품 판매와 저임금에 집중하면서 순환된 잉여자본을 북반구 국가에 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브릭스 내에서는 식량주권이나 식량권을 수호해야 한다거나, 축적된 부에 맞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거나, 금융가의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브릭스의 새로운 기구들은 IMF와 달러에 예속될 것이고, 그렇기에 북반구 국가가 만든 질서에서 벗어나 무역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CRA는 차관을 평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해서 IMF의 감독과 협정에 의존할 것이다. 달러는 이러한 브릭스 메커니즘에서도 존재한다. 서구 시장 진출에 대한 열망이 브릭스 국가의 성장 의제를 지배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대한 요구가 브릭스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브릭스는 미국과 나토의 군사 패권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 1973년 리비아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그랬던 것처럼, UN이 ‘회원국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서양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UN 결의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적 대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군이 2014년에 크림반도에, 2015년에 시리아에 개입한 것은 미군 일극체제가 저물고 있음이 아니라, 다소 약화되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미국은 거의 모든 대륙에 미군기지를 운용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군사 대국이다. 역내 평화체제와 분쟁 해결책은 세계 곳곳에 배치된 나토와 미국의 전쟁 무기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은 정치권력으로 전환된다. 브릭스는 현재 이러한 권력에 도전할 수단이 거의 없다.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및 경제 동맹 전선은 서구 제국주의의 대안적인 극점(極點)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의 잉여라는 피난처를 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신용으로 일정 정도의 경제 부양을 꾀하는,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태세에 불과하다. 2017년 북한과 미국이 대결중인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한 것과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 군대가 서아시아로 진입한 것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그러했듯 미국의 패권이 완성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전 세계에서 미 제국주의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자국 영토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 세력 간의 대결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력 간 대결이다. 브릭스 국가(주로는 중국)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약화된 서구 경제권을 밀어붙이는 형국인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정책과 1990년대 이후 대량의 노동력이 자본주의 세력권 내에 편입된 것에 의존해 온 정치 경제 체제 간의 분쟁은 자본주의 세력 간의 위기가 국가 차원의 분쟁 양상을 띄게 만들었다. 서구가 중국의 세계 주도권 장악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은 최소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잉여자본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서구의 금융 질서를 구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이 항상 말에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직면한 위험은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혼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며 명확하게 말한 바 있다. 그가 말했던 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간 분쟁이었다. 자본주의 세력 간의 라이벌 경쟁은 국가 간, 급기야는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는 끊임 없이 세계 질서를 구성하지만, 더 이상 적나라한 식민주의나 20세기 중반의 신식민주의 형태로 이를 실현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이에 21세기 제국주의를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미국을 중심으로, 2차 동맹국(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기타)을 스포크(바퀴살)로 하는 동맹 체제를 유지한다. 이 스포크의 바깥쪽에는 콜롬비아, 인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보조 동맹국이 있다. 이러한 동맹국은 미국의 권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들 동맹국에 도전하려는 자는 누구든 미군의 전면적 공격과 대서양 국가가 보조 동맹국에 공공연하게 제공하는 군수 물자와 군사 훈련으로 진압될 것이다.

(2) 이러한 동맹 체제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냉전의 종식은 소비에트 연방과 위성 국가라는 동맹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의 종말을 의미했다. 이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고 환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온 것이다. 남미의 부상은 전통적인 쿠데타(온두라스 사례: 좌파 셀라야 대통령이 연임제한 철폐 개헌 투표에 나섰다가 군부와 법조계에 의해 축출됨)나 포스트모던 쿠데타(브라질 사례: 노동자당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를 통해 싹을 잘라야 했다. 대안 권력 기반을 추구하는 브릭스, ALBA(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 또는 기타 세력 모두 분쇄해야 했다.

(3) 미국의 자신감을 높게 유지한다. 1990년과 91년에 벌어진 1차 걸프전에서 조지 H.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은 ‘베트남 신드롬’이 진압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미국은 다시 한 번 세계 무대에서 주요 강대국으로 활동하게 될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태연하게 자국의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80년대의 대리전은 따로 떼 놓더라도 말이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적을 대상으로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 이라크전 후에 나온 ‘또 한번의 미국의 세기’에 대한 요구가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이라크 전쟁의 난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자아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의구심의 싹을 잘라야 했다. 그렇기에 프리무스 인터파레스(primus inter pares), 즉 동등한 사람들 중 제1인자로서의 미국,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부 장관이 말했던 ‘필수불가결한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라는 자아상을 새롭게 되살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태도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의 겁박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4) 북반구 국가에 본사를 둔 초국적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산업 생산 기반으로서의 글로벌 상품망을 보호한다. 초국적 기업은 분절된 생산지(각국에 설립된 제조공장)와 엄격한 지적재산권 법에 힘입어 글로벌 상품망에서 노동자 조직이나 민족국가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 북반구 국가의 동맹 체계가 가지는 외교 및 군사력은 국유화 및 공유 지식 정책을 반대하는 데에 사용된다. 노동 부문의 하청 메커니즘 덕분에 북반구 국가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도덕 수준이라는 것은 유해한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가혹한 노동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5) 광산이나 천공 구멍을 통해 채굴되는 원자재를 대대로 그것을 수호하던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을 보장한다. 환경에 유해하고 비인간적인 채굴 방식은 숲과 사막에 가려지고, 천연자원의 채굴이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던지, 마약과의 전쟁, 아니면 다른 이름의 전쟁으로 그 곳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탄압한다. 북반구 국가의 보조 동맹국과 신흥경제국 모두 경제성장 아젠다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에 북반구 국가는 어둠 속, 즉 그들의 직접적 통제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과는 무관하게 있을 수 있게 되었다.

(6) 사우디 아라비아 왕실을 보호하여 북반구 국가의 은행으로 석유 달러가 유입되도록 한다던가, 가난한 국가가 채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북반구 국가의 금융 권력을 보호한다. 대서양 국가들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북반구 국가들은 동양의 큰 나라들(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유동성 공급을 구걸했다. 그 대가로 북반구 국가들은 그들만의 리그인 G7 회의를 중단하고 G20회의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금융기관이 구제된 후에 그 약속은 잊혀져 버렸다. 금융권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브릭스의 도전은 지금 와서는 거의 사라졌다. 이는 대체로 브릭스 국가의 내부적 모순에 기인한다.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우파가 권력을 잡았고, 남아공 정권도 우회전했다. 게다가 상품가격의 하락은 브릭스 국가의 경제력에 치명타를 가했다. 브릭스의 세계 질서 재정립은 실패했다 - 지금은 말이다.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에 미약하나마 도전하는 임무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브릭스 국가의 어깨에 지워졌다. 군사적 책략과 이란, 북한에 대한 서구의 위협과 러시아에 대한 크림 반도 개입 관련 제재 등 유라시아 반도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및 전략 협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상업 부문에서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제 및 상업적 협력관계(특히 에너지 판매)는 여전히 미미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해역에서 공동 해군 작전을 수행한 것이나 중국의 전함이 러시아 전함에 접근하기 위해 지중해에 들어간 행위는 서구가 전 세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방어적인 태세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지금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를 재편할 역량을 완전히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신파시즘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방어적인 태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과연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테헤란이나 평양에 착륙해 유라시아 양 쪽 경계에 위치한 이들 국가의 정권 교체를 막아낼 것인가?



2부: 주체

# 역사 주체의 해체



장군, 당신의 탱크는 강력합니다.  
숲을 밀어버리고 백 명을 깔아뭉개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딱 한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베르톨트 브레히트, 독일 전쟁 교본(A German War Primer) 중에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적으로 노동 투쟁, 존엄성 투쟁, 천연 자원 보호 투쟁, 몸에 대한 통제권 보호 투쟁 등 힘있고 강력한 민중 투쟁이 많이 있다. 이러한 투쟁은 권력에 저항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지난 100년 동안, 공장과 사무실은 많은 노동자를

감시와 생산성이 밀집된 환경으로 유인했다. 이윤에 굶주린 자본은 거대한 공장과 사무실의 이점을 포착했다. 상품의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는 자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원자재의 가격을 낮추고 막대한 양의 상품을 시장에 과잉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소기업은 파산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끝없이 이어진 생산 라인밖에 없게 되자, 수공업자도 점차 사라졌다. 노동자는 생산 라인에서 점점 더 세분화된 노동을 담당했고, 이러한 노동의 결과물은 노동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하나의 상품으로 조립, 완성되었다. 즉, 한 노동자가 전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이 합쳐져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맑스가 자본론(1867)에서 기술했듯,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다. 수공업 장인이 기술을 조립라인과 기계에게 빼앗긴 것처럼, 노동자에 대한 지적 요구 수준도 낮아졌다. 노동자의 삶은 공장에 저당 잡혔고, 노동 계급은 맑스가 지적했듯 ‘자본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로 끌려갔다.

자본의 이러한 이점은 곧 약점이 되었다. 다수의 노동자가 한 공장에 모이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고찰하거나 존엄성 상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바로 이러한 노동자 간의 대화와 행동 속에서 현대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했다. 공장이 이러한 대화와 행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노동자가 가장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에게는 공장이 덧과 같았다. 공장에 돈을 투자하고 낭비로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그 손실은 공장주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가 파업을 통해 자본을 압박할 수 있음을 뜻했다. 예를 들어, 당시 영국에서는 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이 공장이 아닌 가사 노동 분야에 고용되었다. 하지만 단체 행동을 조직하고 파업으로 자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공장 노동자 같은 이점이 가사 노동자에게는 없었다. 따라서 가사 노동자는 사용자에 저항하면 바로 해고되었다. 그렇지만

공장의 경우, 모든 노동자를 일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장이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렇기에 맑스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노동조합을 사회주의 미래의 핵심으로 보았다. 또한 이는 일부 노동조합운동 내 성차별주의가 산별 노동조합 전략 속에서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가사 노동자(여성)는 유산계급의 가정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탓에 조직이 어려웠던 가사 노동자(여성)는 노동 계급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노동계급 조직의 헤게모니를 밖에 있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되고 여러 성과를 쟁취한지 1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이 되자, 자본은 새로운 착취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의 분절이라는 시대에 들어섰다. 소규모 공장에는 대공장처럼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한 상품이 여러 국가에 분산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자본이 국가보다 유리해진다. 정부가 공장을 국유화하려고 해도 생산 사슬의 한 부분만을 국유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상품 사슬이 국유화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생산의 분절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자본은 한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문을 닫고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투자는 예전처럼 한 곳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다. 대부분의 생산이 멀리 떨어진 곳의 소자본가에게 아웃소싱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아무렇지 않게 한 공급사를 다른 국가로 옮긴다. 독점 기업은 공급사에 대한 의리 따위는 없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산 기법은 노동조합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는 이렇게 세계 도처에 새로 나타난 소규모 공장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일하다가 작업 현장의 빠른 속도 때문에 지쳐 나가떨어지면 결국 농촌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현대 자본주의의 노폐물 역할로 말이다.

노동자가 불안정한 일터로 출퇴근하면서 여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동 일수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노동 계급과 농민 조직을 건설하는데 투여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출퇴근 시간이 공동체와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잠식한 것이다. 사람들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시간제 노동과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사회 생활조차 거의 못 한다.

게다가 노동조합 문화는 상품 문화에 참패했다. 언론, 광고 산업, 교육 기관의 총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노동자에서 소비자로 전향했다. 신자유주의의 정신적 삶으로 닳아버린 이 새로운 정체성은 일터가 아닌 소비 패턴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쇼핑몰과 광고는 여러 계급의 사람을 매혹해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쇼핑몰이 아니라면 절, 모스크,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이 갈 곳을 잃은 비공식 노동자에게 위안을 제공하고, 구타당한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각 종교 지도자가 약속하는 구원으로 보상받는다. 라틴아메리카의 오순절교회와 중국의 기독교 등은 한때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문화가 장악했던 곳에서 끈질기게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켜왔다. 종교와 상품에 대한 욕망을 둘러싸고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문화보다 더 많은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노동조합의 구호가 쇼핑몰과 광고가 없던 시대의 추억으로 묘사되면서, 노동조합은 주류에서 과거의 문화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와 같은 더 일반적인 단결의 정서도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서는 이제 의미 있는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양식이 되어버려서,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에게는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 한 개인이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민족주의의 날카로운 끝은 반대를 강하게 자극한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를 내란 선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학생, 언론인, 노동자, 농민, 여성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의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수용할 수 있는 '민족주의'는 혐오적이고 경솔한

형태의 사회통합으로, 이는 사회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폭력과 반사회적 행동을 전제로 한다.

구조적 실업과 비공식 부문의 확대로 노동자의 불만은 일터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거리에서 생존하려면 마약, 성, 무기 매매나 심지어 물물교환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구실을 제공한다. 정부는 복지보다는 안보에, 자국민을 보살피기 보다는 감시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더 작은 정부(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안보를 위해 확대된 정부 기구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절망과 혁명 사이를 명확히 계산했다. 이는 ‘사람들이 절박해지면 혁명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환자를 살려두어야만 치료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총재 톰 클라우슨(Tom Clausen)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기득권에게는 혁명으로 가는 여정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보(자유주의의 특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 정신을 짓밟기 위한 강력한 안보 조치(파시즘의 특징)를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신파시즘이 공통적으로 찾는 대의명분(대표적으로는 진압 경찰을 배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대에 선택 가능한 길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 ‘자유 무역’의 힘과 ‘인도주의적 개입’ 간의 차이,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상품 사슬과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를 망가뜨리는 정권교체 전쟁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고 있다. 1867년 맑스는 힘은 ‘그 자체로 경제적 권력’이라고 했다.



# 역사 주체의 재구성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 베르타 까세레스

오늘날 생산의 분절, 소비지상주의, 안보국가의 부상에 직면해 좌파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필수적인 질문은 있다. 노동자 문화의 복원 없이는 노동조합의 권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 또한 생산의 분절과 그에 따른 거주지 기반 노동자 권력의 건설(일터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시)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고는, 노동조합의 권력을 쉽게 복원할 수 없다. 핵심은 공장에서의 권력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사이에서 불만과 분노를 자아낼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우리의 발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의 파수꾼인 조합과 정당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 즉 고통의 객관적 조건이 저항의 주체적인 분출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에 대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계급과 농민의 재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주의의 전망은 노동자 권력을 만드는 것에 있다. 노동자 권력을 만드는 것은 일터, 특히 공장과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건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수출가공지구의 소규모 제조사업장과 가내수공업장 등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조직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노동자가 수도 요금을 포함해 필수품 가격 인상에 맞서 생존 투쟁을 하고, 가족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싸우는 곳, 즉 노동자의 거주 지역이다. 물과 공공 장소를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은 ‘공동체’나 ‘이웃’이라는 개념에 고무되었다. 이러한 용어는 겉보기에는 계급적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유물론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계급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노동조합주의자가 조직한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노동자가 ‘물 전쟁(상수도 민영화로 수도요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항한 대규모 시위)’ 기간 동안 지켰던 ‘공동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민영화로 삶이 망가진 노동자의 구체적인 공동체였다. 볼리비아 노동자는 이러한 공동체가 그들의 삶에서 실체가 있는 현실이자, 물 민영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연대이며,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투쟁에서 굳건히 지켜야 하고 생존을 위한 재건에 필요한 사회적 유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도의 공산주의 대중조직인 인도민주청년연맹(Democratic Youth Federation of India, DYFI)과 전인도민주여성연합(All-India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AIDWA)의 경험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슬럼거주자 운동(Abahlali baseMjondolo, AbM)과 브라질의 무토지 농민운동(Movimento dos Trabalhadores Sem Terra, MST)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거주지역에서 그들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의 유효성을 볼 수 있다. 우리 시대에 노동자와 농민은 정부 보조금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 인구밀집



지역인 빈민가에 살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 (UN Habitat)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 인구 4분의 1이 빈민가에 살고 있다. 남반구의 일부 도시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제대로 된 거주 시설이 없고, 깨끗한 물이 부족하며, 위생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고, 의료 및 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빈민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칼리쳐라는 빈민가에는 40만명이 거주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 인구가 적어도 그 숫자의 3배는 넘는다고 말한다.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에는 약 100만에서 150만명이,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시우다드네사에는 100만명이 살고 있다. 세계 최대의 빈민가로 불리는 파키스탄 카라치의 오랑기타운에는 250만명이 살고 있다.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빈민가 거주자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수가 전체 노동인구의 수와 맞먹는다. (인도 전체 노동인구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정책의 사회적 규제를 적용 받지 못하며, 종종 노동조합의 네트워크에서도 빠져있다.

사회의 부는 이러한 곳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고,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지역의 노동자는 1) 개인의 창의력과 자기 조직화, 2) 종교단체나 NGO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폭력 조직이 만든 시장, 3) 가족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된 여성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노동 계급에 의한, 노동 계급을 위한 협동조합과 자립단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종교 단체와 마피아가 노동자 계급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NGO를 포함한 이들은 좌파의 성장을 막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그러나 좌파는 이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남반구 전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좌파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사회적 재생산 분야에서 마피아나 종교 단체, 자선 단체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좌파 조직은 물, 전기, 주택, 도로정비 서비스, 교육과 의료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 계급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 계급과 함께 힘을 합쳐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활동이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상당한 이해가 얽혀 있는 폭력 조직, 종교 단체, NGO의 사업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역에 좌파가 개입하는 것은 여성이 대부분 담당했던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사적 노동을 사회화한다.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적 재생산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지식인들은 이러한 계획을 연구하고 다양한 여건에서 이러한 계획을 나누기 위해 글을 쓰고, 대중의 에너지로부터 나온 모범 사례와 결과를 교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젠더, 종교, 그리고 다른 종류의 계급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분열에 대항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시대 노동 계급의 힘을 만들고 있다. 맑스주의자는 이러한 사회적 계급의 분열이 노동 계급의 단결성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걱정하곤 했지만, 사실 사회 내에서 이러한 분열은 이미 단결성을 깨뜨려왔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이슈를 무시하는 것은 불화와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존엄성 투쟁은 계급 정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계급 정치의 핵심이다. 노동자와 농민은 단결하지 않고는 강해질 수 없다. 인도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깃발 아래 모인 1억 8,000명의 노동자는 2016년 9월 파업을 벌였다. 논의 중인 이슈에는 조직된 공식 부문의 노동자와 조직되지 않은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공공의료와 유아교육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처럼 대부분이 여성) 사이의 분열을 포함해 사회적 분열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노동자는 노동 계급과 농민의 권력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계급,

종교적 종파주의, 그리고 미소지니(여성혐오)에 맞서 싸우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노동자 권력을 만드는데 가장 큰 제약은 소비자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양산하는 압도적인 부르주아 중심의 상품 문화이다. 광고가 자극하는 긴급성과 기업 언론이 주도하는 문화적 공격으로 역사와 집단성의 개념은 약화된다. 역사가 상품 판매를 위한 상징으로 축소되고, 대중 계급의 집단 투쟁이 아니라 뛰어난 한 개인의 개입이 역사를 만든 것으로 간주되면서 말이다. 이러한 사상은 언론과 학술담론에 강력하게 주입되어 있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중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변혁적 변화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일반적인 정서가 깔려 있다. 이는 좌파 역사의 저수지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기여를 강조하고 빛내기 위한 문화적 투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년들은 더 이상 좌파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는다. 청년의 상상력에 좌파, 노동자, 농민의 역사를 붙여넣기 위한 투쟁은 좌파의 힘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부차적인 것이 아닌 필수적이다. 이에 동조하는 지식인은 이러한 의제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중 운동과의 연결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상 논쟁은 희망과 가능성의 운동을 위한 핵심 전선이다. 예를 들어, 기업 주도의 언론이 작동해 온 진리 체계는 다른 국가에 폭격을 가하고 다른 국가의 농업을 파괴하는 무역 정책을 강요해도 서구는 자비롭다는 관점을 조성한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에서 시민을 죽이면 사고로 간주하지만, 골칫덩이 취급을 받는 정부가 시민을 죽이면 그것은 그 나라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성으로 여겨진다. 서구 주도의 무역 정책이 아프리카 말리의 면 생산 산업을 파괴해버리면 자연법칙의 어쩔 수 없는 영향이라고 보지만, 불량 국가가 경제 정책에서 오류를 범하면

실패한 국가 모델의 결과로 본다. 역사의 담론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이 현재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통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CNN 인터내셔널이나 브라질 최대 언론사 글로보(Globo)처럼 편협하고 경직된 기업 주도의 언론은 서구가 주도하는 정권교체 전쟁은 수용 가능한 것이고 서구 주도의 무역 정책은 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잠식되어 있다. 해방적 정보의 유통을 위한 대안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의 제도적 통제와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이 정치, 사회적 운동으로 이룩한 것 외에 사회주의 지식인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전 시대에는 운동 진영에서 배우고, 그 운동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보고, 이러한 운동에서 나온 움직임을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으로 구축하는 것이 사회주의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주의 지식인의 입장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다수의 사회주의 지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 진영과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지식인 계급(언론 지식인과 학자 모두)의 부르주아화, 운동 진영의 해체,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근거가 없고 불확실해 보이는 가치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등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동 진영과 튼튼한 관계를 지속하고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온 수백만 명의 지식인이 있다.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국경을 넘어 이러한 지식인을 규합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해방을 향한 사회, 정치적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다른 이들이 동참하도록 영감을 주고자 한다.

우리의 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시경제 정책을 민주적 통제 하에 두고, 사회적 임금을 올리고, 대중의 요구에 맞는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며, 기업과 기득권의 세금파업을 분쇄하고, 민간 법인인 은행을 공공시설로 전환하고, 모두의 생계와 주거를 보장하기를 원한다. 바로 여기에 미래의 요소가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논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식인에게 달려 있다. 지식인이 운동 진영 자체의 경험에서도 출한 대안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질서를 위한 지적 플랫폼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맹공격에 약화된 두 가지 개념, 즉 인간과 미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품문화와 소비자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고갈시켰다.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자는 그들 자신의 전통을 깊게 들여다보고 인간 특성, 즉 자본주의적 사회 규범에 포섭되지 않은 인간 사회를 논하기 위해 단어를 고안했다.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사무총장 다비드 초께우안까는 잘 사는 길이라는 개념인 카팍냐(Qhapag ñan, 원래는 잉카 제국이 조성한 방대한 도로망)을 이야기하면서, 소비자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인간인 이얌배(iyambae, 과라니 말로 ‘잘 사는 사람’을 의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초께우안까가 이야기했듯이, 주인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은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 즉 미래’이다. 인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인간 공동체 건설로 나아가는 것의 필요성을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상품과 소비자를 회계 공식으로 단순화한) 회계장부의 논리에 밀려 인간에 대한 고려가 점차 사라지는 것과 맞서 싸우는 대중운동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사회주의 지식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는 영원하지 않으며, 변혁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혁의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논쟁한다. 내일이 오고, 모레가 오고, 다음 달, 내년이 올 거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가 이어진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일 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니다. 만약 미래에 대한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술이 장악해 버렸다. 인간의 특성이 아닌 기술이 미래의 생각이 된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다. 새로운 녹색 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디지털, 나노 기술로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기술결정론은 수십억 명의 꿈을 가로막는 문제에는 사회적, 정치적 장벽이 없고, 전적으로 기술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는 역사와 미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다. 일정한 기술 발전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분명히 필요하지만, 기술 자체가 역사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이 계급의 최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만 부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오래 전부터 세습된 부와 권력의 계급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어야 미래에 대한 풍부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변혁은 가능하며,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현재 사회 구조가 우리의 꿈과 희망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바로 이러한 지평의 지표를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과학이 불가능이라는 냉소주의로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량에 대한 접근성 제한, 공공 자원이라고는 얼마 없는 국가에 의욕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 등 우리 시대의 조직된 잔인성은 거의 비난 받지 않는다.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도 만연하다. 이는 인류애, 인간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된다. 그 동안 알려진 인류의 모든 전통이 심대한 위협에 처한 듯 하다. 민주주의, 평화와 문화 같은 개념은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더 이상 의미하는 바가 거의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아이디어를 감싼 얇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세계의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래된 것을 대신해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다.

3,000만명이 현재 기아 선상에 놓여 있다. 이들은 가뭄, 산불, 전쟁을 피해서, 그리고 식량을 찾아 도피하고자 한다. 생계가 끝나는 것과 이주 허가 거부라는 양 쪽으로부터의 공격에 짓눌린 세계의 빈곤층은 알지도 못하는 죄목으로 처벌 받고 있다. 과연 무엇을 했길래 이러한 운명에 처한 것인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자이 프라샤드는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장 이고, 25권의 책을 썼으며 20여 권의 책을 편집했습니다. 저서에는 *The Poorer Nations: A Possible History of the Global South* (더 빈곤한 나라: 남반구 국가가 쓸 수 있었던 역사, 한국어 미출간), *The Darker Nations: A People's History of the Third World* (국역본: 갈색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프론트라인, 더 힌두(인도), 얼터넷(미국), 비르군(터키) 등의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레프트 워드 북스(뉴델리)의 편집장입니다.



## 참고자료

- Annette Alstadsaeter, Niels Johannesen and Gabriel Zucman, 'Who Owns the Wealth in Tax Havens? Macro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Global Inequa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7).
- African Development Bank, *African Development Report 2015 –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Nexus: Overcoming Barrier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frican Development Bank, 2016).
- Christina Scharff, 'The Psychic Life of Neoliberalism: Mapping the Contours of Entrepreneurial Subjectivity', *Theory, Culture and Society* (2015).
- Corina Rodríguez Enríquez, 'Economía feminista y economía del cuidado', *Nueva Sociedad* (2015).
- Daniel Hoornweg and Perinaz Bhada-Tata, *What a Waste. A Global Review of Solid Waste Management* (World Bank, 2012).
- Deborah James, 'Twelve Reasons to Oppose Rules on Digital Commerce in the WTO' (CEPR, 2017).
- Elisabeth Armstrong, *Gender and Globalisation: The All-India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and Globalisation Politics* (Tulika, 2013).
- Global Financial Integrity, *Illicit Financial Flows to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2005-2014*, (Global Financial Integrity, 2017).
- John Smith, *Imperi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isation, Super-Exploitation and Capitalism's Final Crisis* (Monthly Review, 2016).
- Junot Diaz, 'Apocalypse', *Boston Review*, 2011.
- Jorge Máttar y Luis Mauricio Cuervo, eds., *Planificación para el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nfoques, experiencias y perspectivas* (CEPAL, 2016).
- Jürgen Weller, ed., *Brechas y transformaciones. La evolución del empleo agropecuario en América Latina* (CEPAL, 2016).

- Melissa Wright, *Disposable Women and Other Myths of Global Capitalism* (Routledge, 2006).
- Michihiko Hachiya, *Hiroshima Diar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Omar Dahi and Firat Demir, *South-South Trade and F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Rise of the South or the Second Great Divergence* (Anthem, 2016).
- Prabir Purkayastha, 'Net Neutrality in the Age of Internet Monopolies', *The Marxist* (2015).
- 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Reclaiming Policies for the Public (Civil Society Reflection Group, 2017).
- *Strongmen: Trump-Modi-Erdogan-Duterte*, edited by Vijay Prashad (LeftWord, 2018).
- *The Economic Value of Peace 2016*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2016).
-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PricewaterhouseCoopers, 2017).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UNCTAD, 2017).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2017).
-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6: A Fair Chance for Every Child* (UNICEF, 2016).
- Utsa Patnaik and Prabhat Patnaik, *A Theory of Imperialism* (Tulika, 2016).
- Vijay Prashad, *The Poorer Nations: A Possible History of the Global South* (Verso, 2013).
- Vijay Prashad, *No Free Left: the Futures of Indian Communism* (LeftWord, 2015).
- Wendy Wolford, *This Land is Ours Now: Social Mobilisation and the Meaning of Land in Brazil* (Duke, 2010).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 201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2016).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민중의  
열망에 복무하는 지적  
토론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둔 국제적이며 사회운동  
중심의 연구단체입니다.*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s an  
international, movement-driven  
institution focused on stimulating  
intellectual debate that serves  
people's aspirations.*

*Instituto Tricontinental de  
Investigación Social es una  
institución promovida por los  
movimientos, dedicada a estimular  
el debate intelectual al servicio de  
las aspiraciones del pueblo.*

the **trico**ntinental.org  
el **trico**ntinental.org